

‘잔류 확정’ 광주FC, 대구 잡고 시즌 첫 3연승 쏜다



신창무



1부리그 잔류를 확정 지은 프로축구 광주FC가 원정 경기에서 올 시즌 첫 3연승을 노린다. 광주FC는 8일 오후2시 대구iM뱅크PARK에서 하나은행 K리그 1 2025 36라운드 대구와의 원정 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지난 2일 제주SKFC와의 35라운드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13승 9무 13패 승점 48점을 기록, 리그 7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파이널 라운드 종료까지 남은 경기는 단 3경기. 10위 수원FC(승점 39점)와는 9점차, 9위 울산HD(승점 41)과는 7점차다. 오는 9일 울산과 수원이 맞

을 안긴 대구의 저력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리그 최하위인 대구(승점 29점)는 다이렉트 강등 가능성을 피하고자 총력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미 최근 5경기 1승 4무로 패배 없이 승점을 적립, 간절함을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구가 11위 제주(승점 35)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남은 3경기 중 최소 2경기 이상 승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37라운드에서는 제주와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쟁취해야 한다. 대구는 팀의 해결사인 세징야, 에드가 듀오가 시즌 막판 집중력을 뽐내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세징야는 4골 3도움, 에드가는 2골을 기록할 정도로 맹활약 중이다.

내일 오후 2시 대구iM뱅크파크서 대구와 맞대결

승점 48점 리그 7위…프리드온슨·신창무 등 주목

붙는 만큼, 두 팀보다는 최종 승점에서 앞서 최소 9위가 확보됐다. 1부 잔류가 확정된 것이다.

특히 파이널라운드 진입 후 안방 2연전에서 모두 승리, 과정과 결과가 좋았다.

이 기간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다. 광주의 최대 강점으로 떠오른 수비 집중력은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올 시즌 광주는 리그에서 40골을 허용했다. 이는 파이널B 그룹에선 단연 최저 실점에 해당하며, 범위를 전 구단으로 확장해도 강원FC(실점 40)와 함께 우승팀 전북현대(실점 30) 뒤를 잇는 기록이다.

광주는 남은 리그 3경기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 유종의 미를 거둔 후 12월 6일 코리아컵 우승으로 정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은 잔여 일정 모두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더욱이 광주는 지난 10월 4일 경기서 아쉬운 패배

진흙탕 싸움이 유력한 이번 단판 승부는 코리아컵을 준비해야 하는 광주 선수단에도 귀중한 경험이 될 예정이다.

광주는 직전 제주와의 경기서 데뷔골을 터트린 프리드온슨의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일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이며 적응력을 높인 프리드온슨은 제주전 득점포로 자신감을 끌어올렸고, 남은 일전서 광주의 최전방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다. 이외에 헤이스, 박인혁, 신창무 등 주요 공격자원이 최근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라운드에도 승리를 조준한다.

프리드온슨은 “남은 경기에서도 좋았던 느낌을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며 “몇 골이든 넣을 자신이 있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1부리그 조기 잔류 확정을 지은 광주가 대구 원정에서 승리, 올 시즌 첫 3연승에 성공하며 순위를 균형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프리드온슨

‘2025 KLPGA Master Professional’ 수료식

“레슨 전문성·경쟁력 강화 골프 저변 확대 이루겠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6일 서울 강동구 KLPGA빌딩에서 ‘KLPGA Master Professional’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LPGA Master Professional’은 회원들의 레슨 전문성 강화와 골프 프레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21년에 신설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 과정은 8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이번 교육 과정은 레벨1부터 레벨3까지 단계적으로 설계돼 총 15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레벨1은 골프 전문 교습가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역량, 골프 스윙 매커니즘, 신체구조 해부학, 골프규칙, 레슨 프로그램 설계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레벨2에서는 스윙 진단 및 교정 방법, 골프 컨디셔닝 및 피트니스, 스윙 역학, 퍼팅 트레이닝 지도법, 클럽퍼팅, 멘탈 코칭법, 압력 중심(CoP) 측정 및 활용법 등 전문적인 레슨 지식을 배운다.

마지막 레벨3에서는 온라인 레슨 동영상 촬영 노하우, 상황별 쇼트 게임 지도법, 필드레슨 지도법 및 라운드 실습 레슨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노하우 중심의 수업이 열렸다.

이번 과정에서는 총 30명의 회원이 경쟁을 뚫고 선발, 레벨3 과정까지 모두 이수하고 최종 심사를 통과한 19명이 KLPGA Master Professional을 수료했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 과정을 마무리한 이세인(24)은 “땀겨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함께한 동료들과 KLPGA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배운 것을 토대로 더욱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료자에게는 인증패와 교육 자료집이 제공되며, 향후 KLPGA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 수료자 프로필은 KLPGA 홈페이지 내 ‘교습가 찾기’ 페이지에 등록돼 일반 골프 수요자들에게 공개된다.

김상열 KLPGA 회장은 “3개월간의 긴 여정을 성실히 수행한 회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 KLPGA를 대표하는 전문 교습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되며, 내년에도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과 강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 베이스볼 시리즈 시작…한국, 체코와 8·9일 평가전

류지현 감독, 대표팀 첫 공식 경기

프로야구 2025시즌이 10월 31일 LG 트윈스의 통합 우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11월에도 야구는 계속된다.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K-베이스볼 시리즈 한국과 체코의 국가대표 평가전이 열리고, 15일과 16일에는 우리 대표팀이 일본 원정을 떠나 도쿄에서 일본 국가대표와 2연전을 벌인다.

이번 국가대표팀 경기는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일본과 체코는 일본에서 열리는 WBC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편성된 나라들이다.

9월 세계 랭킹으로는 일본이 1위, 한국 4위, 체코는 15위다.

체코와 2연전을 대비해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지난 2일 소집돼 훈련을 시작했다.

한국시리즈까지 치른 LG와 한화 이글스 소속 선수들은 4일 대표팀 훈련에 합류했으며 이후 7일까지 사흘간 ‘완전체’로 짧게 손발을 맞춘 뒤 8일 체코와 1차전에 나선다.

체코와 1차전 선발 투수로는 광빈(두산 베어스)이 내정됐다.

광빈은 2025시즌 KBO리그에서 19경기에 나와 5승 7패, 평균자책점 4.20을 기록했다. 2024년 15승 9패, 평균자책점 4.24와 비교하면 주춤했다. 올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옆구리 근육 부상 때문에 6월 초가 돼서야 처음 출전했다.

류지현 감독은 “마지막으로 실전 등판한 지 한 달 넘게 지나 감각 회복이 필요하다”고 광빈을 선발로 낸 이유를 설명했다.

광빈은 물론 야수들도 한 선수가 오래 뛰게 하기보다 여러 선수를 고루 기용하며 승패보다 컨디션 점점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 1월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된 류지현 감독의 첫 공식 경기라는 점에서 승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다.

대표팀 감독 첫 공식 경기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체코에 달미를 잡히는 것은 류 감독으로서의 상상도 하기 싫은 결과다.

체코는 우리보다 세계 랭킹은 아래지만 올해 유럽선수권에서 처음으로 3위에 오르는 등 최근 상승세가 돋보인다. 2023년 WBC 조별리그에서도 우리나라와 한 차례 맞붙어 한국이 7-3으로 이겼다.

당시 파벨 하딕 감독은 본업이 의사였고, 선수들도 소방관, 교사, 부동산업 등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았던 사연이 화제가 됐을 정도로 사실상 실업 야구 수준의 팀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MBC와 SBS TV가 8·9일 한국과 체코 경기를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최근 경기 고양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에서 투병 훈련을 하고 있다. 야구대표팀은 내년 3월 개막하는 202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대비해 체코(8~9일·서울 고척스카이돔), 일본(15~16일·일본 도쿄돔)과의 평가전을 갖는다.

행민